

# ‘대승기신론소’ 뜻 새겨 무명 걷어낸다

## 도심 수행도량을 찾아서 ⑧ - 부산 아미타도량 원효학당

이 세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있다. 그것은 부처가 어떻게 중생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갠지스강의 모래알 보다 더 많은 공덕과 복덕을 갖춘 부처가 어떻게 했길래 이토록 불성 사나운 중생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능가경>에서는 이것이 기절초풍할 정도로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설하고 있다.

반대로 이 세상에 중생이 생기고 난 뒤, 가장 희망적인 통로가 열렸다. 그것은 바로 죄 많은 중생이 부처로 환원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보다 우선시 해야 할 일이 있겠는가? 이 길을 찾아 나선 공부 모임이 있다. 바로 원효 대사께서 쓰신 걸작 중의 걸작, <대승기신론 해동소>의 지도를 따라 부처의 세계로 환원해가는 부산 아미타도량 원효학당 구도자(求道者)들이다. 원효학당의 <대승기신론소> 강의가 열리는 날, 강원에서 사용되는 한문본 교재를 사용해서 스스로 문장의 뜻을 새기고, 부처님 말씀을 되살려 내다보면 불경은 어느덧 생동하는 언어가 되어 가슴을 울린다.

6월 30일 목요일, 대승기신론소 1기생들의 수업은 4권을 마무리하고 5권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소승의 여러 수행법이 마음을 빼앗 대승의 바른 믿음에서 물러서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 대승의 바른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 시작한 강의가 생멸문 끝자락에 와 있었다.

“진여의 자체상은 대지해광명과 변조법계와 진실식지, 자성정심, 삼라야정과 청량 불변 자재를 완벽하게 구축해 있는데도 중생은 늘 공립과 모자람으로 허락하고 있다. 중생은 부처의 성품인 진여와 함께 행주좌와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즉 부처와 더불어 자고 부처와 함께 일어나 움직이고 있는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중생은 슬픔과 고통에 집착되어져 왔다.” 5권이 시작하는 부분에서 대승의 체대(體大), 상대(相對), 용대(用大)를 통해 진여의 공덕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런 중생들을 부처님께서 ‘황제의 아이를 임신한 거지 여인’에 비유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거지 여인이지만 황제의 아이를 낳아버리면 바로 거지 신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여자성이라는 씨



부산 원효학당에서 공파 스님이 <대승기신론소> 강의를 하고 있다.

### 강원서도 듣기 힘든 원효의 해동소 강의

### ‘경전은 어렵다’는 편견 깨고 믿음 뿌리내려

앗만 말한시켜 그것을 혼숙해 버리면 우리는 바로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면 하나도 모자람이 없이 갖춰져 있는 내 진여자성을 어떻게 드러내고 혼숙하 나가 문제겠지요?”

### 출·재가자 함께 공부

스님은 다이아몬드의 예를 들었다. “다이아몬드는 스스로 빛을 내진 못해요. 다이아몬드를 덮고 있는 구름, 즉 무명을 걷어 냈을 때 한줄기 빛이 들어가 다이아몬드를 비추게 되고 그러면 나와 세상을 두루 비추고 남을 빛으로 증진하게 합니다.”

원효학당 1기생들은 무명이라는 어두운 평도에서 공파 스님이 치켜든 햇살을 따라 가며 진여자성의 실체를 확인해 가고 있었다. 원효 스님의 절절한 풀이와 공파 스님의 시대감이 살아 있는 언어가 ‘생사윤회의 긴 집에서 깨어나라’고 수강생들을 일깨우는 것이다. 한편 경전 속으로 파고들어갈 듯 열중

하고 있는 수강생 중에 스님 5-6명이 눈에 띈다. 모두 강원과 동국대학교를 마치고 선원에서 수년간 수행 정진한 스님들로 강의를 해도 손색이 없을 법하다. 재가자들의 면면도 예사롭지 않다. 원효학당이 생기기전인 5-6년 전부터 공파 스님의 경전 강의를 찾아서 들은 이도 있고, 기독교, 천주교를 두루 섭렵하다 공파 스님의 강의를 듣고 불법의 방대함에 매료돼 불교 공부를 시작한 이도 있다.

대승기신론소 1기생 강의를 시작한 것은 지난해 3월, 벌써 1년 4개월째로 접어들었다. 한 논장으로 이렇게 알뜰하고 끈기 있게 강의하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게다가 원효 스님의 해동소를 배운 곳은 더더욱 드물다. 강원에서도 접하기 어려운 강의로 한국 제일의 경전 공부 도량을 자부하는 원효학당에서는 공파 법문에 익숙한 풍토에서 제법 비싼 강의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한번 강의를 들은 사람들에게 강의료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공파 스님의 주옥같은 경전 해석이

수강생들의 내면을 흔들어 깨우기 때문이다.

이미 강원에서 <대승기신론소>를 배운 스님들까지 다시 들을 만큼 공파 스님의 강의는 경전이나 논장이 결코 어렵거나 난해한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매혹적인 언어들로 진리의 길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30여 년을 경전 연구와 번역으로 이미 <부처님의 유언> <극락세계 I II III> <천수경의 원본경전> 등 여러 권의 경전 번역서를 펴냈고 부처님 말씀에 충실한 남방불교 수행도 두루 경험한 공파 스님의 경전 이해가 남다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6년 전부터 공파 스님의 강의를 듣고 있는 권미정(30·의사씨)은 “경전에 근거를 두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게 된다. 불교에 대한 체계적인 기초를 잡을 수 있어 보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바른 수행, 바른 삶을 영위하게 된다”고 했다.

### “경전은 가슴으로 느끼는 것”

“경전 하나를 제대로 본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는 물음을 제기한 김대광(40·자영업)씨는 “불교에 대해 잘못 알고 있던 것을 경이나 눈을 통해 바로 잡아 나가게 된다”며 “바른 수행의 길이 수행신신분에 나온다니 다가를 강의를 기다리는 재미도 쏠쏠하다”고 말했다.

성낙석(40. 금융업) 씨도 “원효 스님이 전개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릴 때 밤새워 읽었던 중국 무협지보다 더 실용적이고 더 스펙타클하다”고 탄복했다.

공파 스님은 말한다. “경전은 머리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그래서 스님은 남들이 해석해 놓은 경전을 훑고 지나가는 것을 경계한다. 스스로 뜻을 새기고 경전 원문을 해석하며 가슴에 새기고 새겨 부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라는 것이다.

이어 스님은 “불자라면 누구나 일년에 한 경전 읽기를 실천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대로 알지 못해서 스스로 갖추고 있는 불성을 외면하고 거지처럼 바깥에 향해 구걸하며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불제자의 길이다”고 뜻을 밝혔다.

대승기신론소 카페(cafe.daum.net/kongpaam)를 통해 온라인 공부 점검도 진행 중인 아미타도량 원효학당은 대승기신론소 강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원효 스님이 무척이나 즐겨 인용했던 능가경의 핵심을 두 달 동안 공부하고 대승기신론소의 대미를 장식할 계획이다. (051)611-3808 부산·천미희 기자



##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 <25> 출가자는 ‘만인의 연인’

이미 열반하신 어느 노장님께 들었던 이야기다. 해방 전에 출가하신 까닭에 절 바깥에 나갈 때는 일본불교 영향으로 양복도 입을 수 있던 그런 시절에 하루는 도반들과 동쳐서 ‘용하다’는 절술가를 찾아가셨다. 모두 승려라는 신분을 숨기고 사주를 보았다. 마지막으로 그 노장님의 차례가 돌아왔다.

“거참 이상하네. 저렇게 멀쩡하니 생겼는데 왜 죽이려 하냐?”

속으로 킁킁 웃었다. 당연하지.

“그런데, 예~ 이게 뭐야. 여자가 없어서 못 가는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못 가겠네.”

정말 신중하네. 어떻게 알았지. 출가자는 혼자 살기 때문에 주인(이) 없다. 동시에 모두가 주인이다. 이른바

‘만인의 연인’이다. 출가자의 존재의미는 정법을 오래도록 머물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야 하는 ‘등거리외교’가 처신의 기본이다. 얼마 전 어느 일간지에 나온 유명 시인수녀의 인

편으로 시 한수를 지어 주었다. 도덕뿐만 아니라 글 실력으로 태전 선사의 살림살이를 보여주면서 그와 승부를 가릴 참이었다. 결국 예상대로 흥련도 살고 한퇴지마저 불교에 귀의하게 되었으니 이는 진짜 실용성까지 겸비한 멋진 선시(禪詩)가 된 것이다.

축융봉 내려가지 않기를 십년(十年)不下祝融峰)

색을 보고 공을 붉어 색 그대로 공이네(觀色觀空即色空)

어찌하여 조계의 물 한방울을(如何一滴曹溪水)

흥련의 잎사귀에 떨어뜨릴 수 있으랴(肯隨紅葉一葉中)



이건 사건도 사건이려니와 시 또한 의미심장하다. 난해한 다른 선사와는 달리 이해하기도 쉽다. 모든 구절에 두 가지 뜻이 함축돼 들어있다. 기생 황진이야 벽계수를 풀실 때 읊었다는 ‘청

### 태전 선사에게 미모의 기생 흥련 보낸 한퇴지

### 속치마에 쓴 선시에 감동받고 불교에 귀의

터부에서 ‘실속(實)없이 바쁘기만 한 만인의 연인’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럴듯하다. 사람 사는 곳이다보니 가끔 인간냄새 나는 ‘로맨스’ 류의 이야기를 선어록에서 양념처럼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쏠쏠한 재미다. 제일 유명한 사건 중의 하나는 태전 선사와 기생 흥련 사이의 이야기일 것이다.

당시 큰 문장가요 선비로 명망이 자자했던 한퇴지는 불교를 비방한 탓으로 중양에서 좌전을 당해 조주(趙州)로 내려와 분심을 삭이고 있었다. 그리고 화룡이 일종으로 당시 그곳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태전 선사의 스타일을 구기게 할 목적으로 고을 제일의 기생 흥련에게 그 임무를 맡겼다. 기생에게 준 임무라고 해봐야 뻔하다. 작업을 개시한지 백일이 되어도 태전 선사는 꿈쩍도 없었다. 그 고매한 인격에 반해버린 흥련은 선사에 애인이 아니라 스승으로 모시게 되었다. 거기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작전이 실패하니 자기 신변에 대해 노심초사했다.

선사는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흥련에게 한퇴지의 화가 미칠 것을 염려해 해결방

안리 벽계수야...명월이 만공산하...’에서 보듯 벽계수와 명월(황진이)의 호는 본래의 뜻은 물론 두 사람을 함께 상징하고 있다. 이처럼 태전 선사 역시 미모의 기생을 보고서도 담담한 경지를 ‘색즉시공’이라 했다. ‘흥련의 일사기’와 ‘조계의 물 한방울’ 역시 남녀의 성을 아름답게 승화시켜 표현한 것으로 대단한 안목이다. 그리고 이 시를 한지가 아니라 흥련의 흰 비단 속치마를 펼쳐놓고 그 위에 붓글씨로 일필휘지 써 내려갔다는 상황 역시 상상만 해도 멋이 넘친다. 그 장면은 해산 큰법당 뒤편 한 칸에 벽화(기운데 그림)로 남아있다.

혹으로 이런 일을 대비해서라도 이 시는 반드시 외워두어야 할 것 같다. 글자 몇 개만 바꾸면 지금도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시간 날 때 붓글씨 연습도 좀 해두어야 할 것 같다. A4용지에 공서체로, 프린트로 뽑아찍어서는 흥련 정도는 몰라도 한퇴지류의 수준까지 교화시키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 원효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 개 천 지 조 화 벽

##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치는 천기도량 완성

- 원효대사님의 미륵상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인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음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이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마오니 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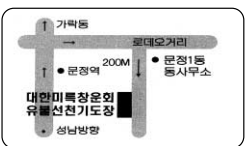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통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童道師)이 직접 상담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 "천기도법"(天氣道法)

-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안되는 분
-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 집안이 잘 안된다는 분
-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및문의: 02)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闢道救人)”

황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 시대를 펼칩니다.

##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도를 수행(佛,行)함으로써 혁명적인(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大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조광력에너지, 생명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난치병 치유)
- 자기 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체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힘으로서 명산대천을 찾아 헤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원기력, 수인력, 대화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예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통(천안통, 천이통, 속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天氣道場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완성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यो 지극히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합된 흥익인간 이념을 구현함이니라!